

연평도 해상 포 사격훈련 1시간 30분만에 종료

화기 총동원 NLL 10km 남쪽에 발사

지난달 훈련때 못쏘고 남은 포탄 소진

육·해·공 전력 당분간 대기상태 유지

20일 오후 2시30분께 시작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벌코포 사격을 끝으로 4시4분께 완전 종료됐다. 군당국은 훈련 종료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 사격훈련 어떻게 진행됐나=20일 오후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해병대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달 23일 훈련 때보다 훈련시간이 짧았다.

군 당국은 이날 훈련은 오후 2시30분에 시작돼 오후 4시4분에 끝났고, 연평부대가 보유한 K-9 자주포(155mm)와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벌코포 등의 화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에 중단된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으며 당시 계획대로 쏘이 못해 남은 포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격훈련 구역은 가로 40km, 세로 20km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으로 지난달 23일 사격훈련 때와 같다. 군

관계자는 “1974년 연평도에 105mm 견인포가 최초 배치된 이후 이 지역에선 연중 수차례 사격훈련이 지속됐다”며 “작년에는 10차례 정도 훈련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에 두 차례, 9월에 한 차례 사격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격방향은 서남쪽이며 포탄이 NLL에서 10km 이상 남쪽으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계획된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며 “연내 연평도 추가 사격훈련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 北추기도발 대비 총력=북한군은 지난달 23일 연평도 사격훈련 당일 포격 도발을 해온 데다 이달 17일 우리 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하면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어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정당한 훈련을 벌미로 추가 도발한다면 지난번과는 달리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교전규칙’에 악용이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원점을 응징할 방침이다.

지난번에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K-9 자주포로 대응사격하는 포격전으로 그쳤지만 이번에 북한에 추가 도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 전투기가 공중 타격에 나서면 북한의 미그 전투기가 출격하고 공중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군의 보복 타격을 의식해 북한군이 북방경계선(NLL) 남쪽 해상에 포격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 대표 참관 北 도발 억제

北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

20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에도 북한군이 즉각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 17일 우리 군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재개하면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작 훈련 당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사격훈련 때와 달리 즉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군이 민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위권을 발동해 전투기와 함정 등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즉각 응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최고사령부 보도는 그러나 “한계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2차, 3차 강력한(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군들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참여해 통제, 통신,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원국 대표 등도 참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연평도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당장 대응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최고사령부 명의의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 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고사령부 보도는 그러나 “한계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2차, 3차 강력한(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군들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행안부 3만명 규모 지원 민방위대 창설

법무부 성폭력 범 신상 공개 대상 확대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 행정안전부·안전한 국가·건설한 지자체 구현=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추가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10여년간 기반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고, 내년 9월까지 3만명 규모의 지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 CCTV를 통합해 실시간 관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자체에 설치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892곳에서 내년에 1만5002곳으로 확대되고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CCTV 등이 확충된다.

◇ 법무부 ‘성범죄 청정국가·부정부패 척결’=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동대상 범죄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로 확대되고 성도착 환자의 성충동 암물치료제도를 도입(7월)한다.

국내 최초로 민영 교도소를 열어 맞춤형 교정을 펼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점검 교도소를 운영하는 등 범죄인의 재사회화도 힘쓴다.

변호사가 없는 ‘무변존(無辯存)’ 15곳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만드는 등 그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있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장

서울 삼일로점(집금금영) 남溧포 입구: 02-2276-0567~9 강남점(집금금영) 대교로 2220 송파점(석촌역 2층) 출구: 02-2419-3388
경기 안양점(구.서화관) 2층: 032-421-5110 수원점(부평역): 032-617-0510 의왕점(보현로터리): 032-246-5665 안양점(백화점 2001)
아산점(1층): 031-460-0110-1 광명점(광명역): 031-658-5110 용인점(분당역): 031-036-1090 오산점(국수원 2층): 031-378-1833 부천점(GS백화점): 032-29-4400
시흥점(시흥로터리): 051-818-8800 서안점(8층): 051-26-7200 출산점(성남백화점): 052-268-2283 경기 안산점(마산역): 051-297-6060
진주점(진주점): 051-52-8845 전주점(전북로터리): 051-204-5110 인천점(인천고속터미널): 050-659-2248 광주점(광주백화점): 051-255-4000 대구 동부점(동부마트): 053-426-1511
남원점(남원점): 063-638-5600 5000 원화점(원화점): 063-632-2626 대전 대덕점(동성점): 042-255-4900 광주점(광주백화점): 041-652-2688
제주 제주점(제주점): 043-222-3388 충주점(충주점): 041-652-5110 충북 청주점(현대백화점): 042-222-3388
리산고속 및 은관: 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 043-652-1414 광원점(충천오거리): 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040-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대형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제작방법 1단계
[전시판] →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

제작방법 2단계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제작방법 1단계
[전시판] →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

제작방법 2단계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 → [제작]